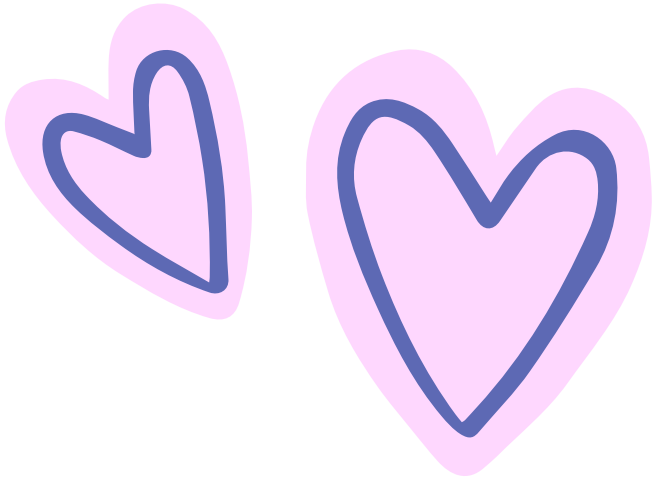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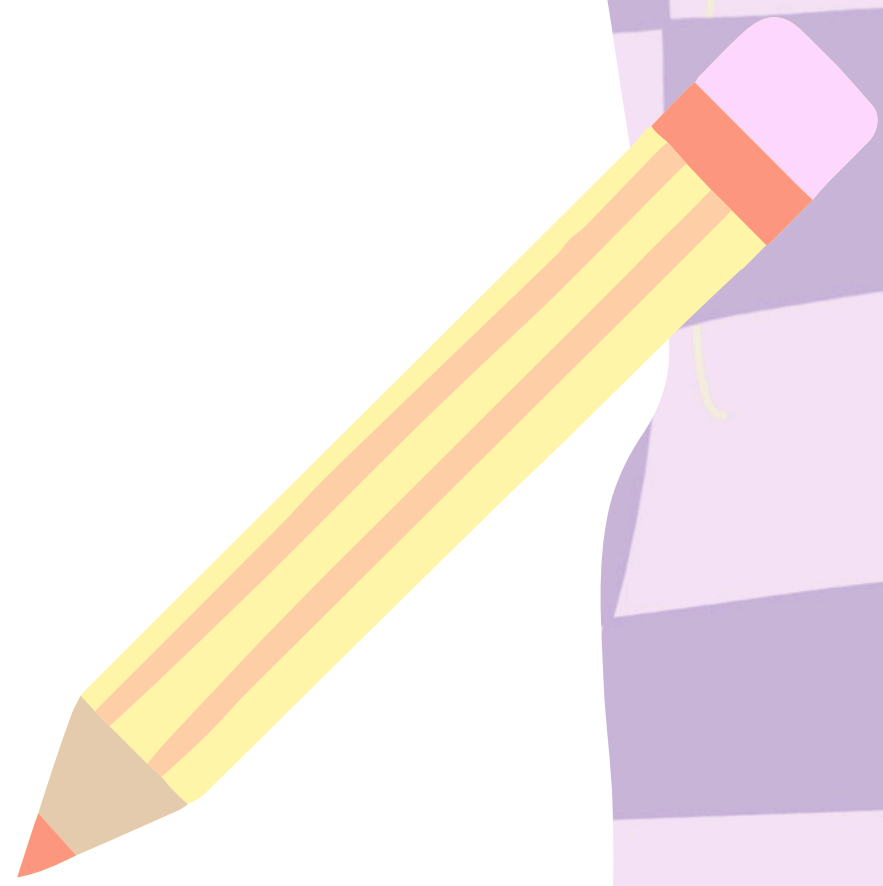




GROUP HOME

The Story of September





HABARY

하바리~ 안녕하세요.

케냐는 자카란다가 만발하였습니다. 자카란다 꽃잎들이 보라색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카란다는 케냐의 국화이며, 10월에 만발해요.

자카란다는 보라색이 아프리카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고단하고 궁핍하지만 그속에서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며 삶을 살아내는 주름살 깊이 패인 노동자들의 고달픈 미소를 닮았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인생이지요.

우리 그룹홈의 아이들에게는 사연이 참 많아요. 고단하고 궁핍한 삶속에서 피어나는 자카란타처럼 그렇게 주님안에서 아름답게 만발할 아이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꿈꿔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지켜봐주세요.





GROUP HOME NEWS

1. 벤틀 선생님 송별회
 2. 드려 브라빈이 돌아왔어요!
 3. 꿈꾸는 아이들
- 

TR. BENTAH FAREWELL

아이들을 참 사랑했던 여자그룹홈의
튜션 선생님이었던 티처 베타가 1년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여 모은 돈으로
염원하였던 교육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서 주고,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에게 고마워 눈물을 보이고,
아이들 하나 하나 안아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베타 선생님이
멋진 선생님이 되어서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COME BACK HOME

3월말에 그룹홈을 도망쳐 나갔던 브라빈이 5개월만에 그룹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개월의 여정동안 다른 센터에 가보기도 하고, 저 멀리 가보고 싶어하던 몸바사에도 가보고, 여기 저기 둘러보고 마침내 그룹홈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자 그룹홈의 아이들이 브라빈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어찌해야할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룹홈의 아이들이 기쁘게 브라빈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다시 받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라빈도 다시는 거리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이들과 잘 지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룹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머리로 살아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공동체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MITCHELLE

미셸이 지난 학기 내내 치통으로 고생을 하였어요.
약을 먹고 괜찮아져서 방학동안 집으로 돌아갔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
다시 치통이 시작되었고, 끝내는 어금니를 뽑게 되었어요.
아이가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나 그 주에 예배에 나와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양치하는 법을 알려주고,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지만, 이미 집에서 상하고
온 상태여서 뽑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케냐의
치료방법은 우리처럼 신경치료가 있지 아니하고, 어느정도 약으로
치료하다가 안되면 뽑는 것 밖에는 치료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어른들도 치과에 가지 않으려해요.
뽑는 방법이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마취는 하는 것 같은데
장비가 아무래도 좋지않으니까요.
아이들의 치아 교육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RAYAN

오줌싸개였던 우리 라얀이
키도 부쩍 컸고, 이젠 형님이 되어가네요.
제게 조용히 다가와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수줍게 말하던 라얀. 남자 그룹홈에도
언젠가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기대해봅니다. 꾸밈없이 환하게 웃는
라얀이를 보면 참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라얀이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라얀이는 엔지니어가 꿈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IAN

일상을 되찾은 이안이.

지난 금요일에 이안이 아빠와 동생들이 예만찬 예배에 참석하였어요. 아빠와 동생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안에게 보여주었더니 눈물이 글썽이며 눈에 그리움이 가득하더군요. 박상훈 선교사가 이안에게 잘 훈련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야 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다고 말해주니, 결의에 찬 얼굴로 그렇게 하겠다고짐을 합니다. 참 귀한 아이입니다. 주님께서 기르시고, 친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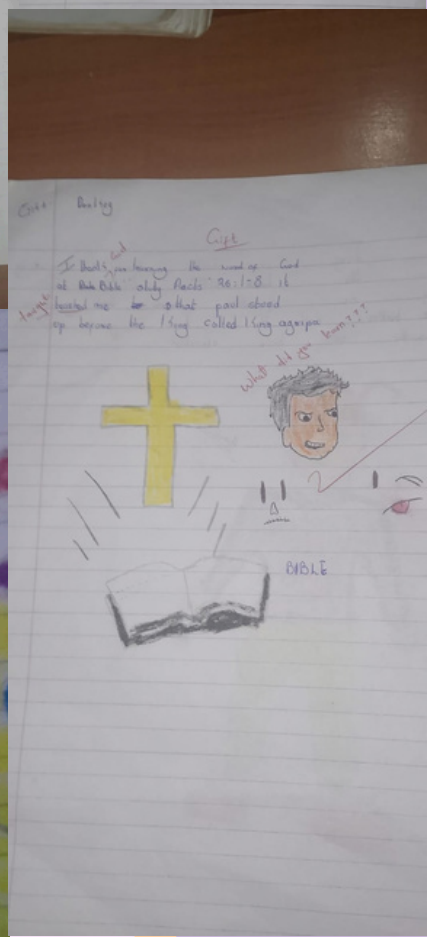
사비나



리타

올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토요 어린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을
통해 아이들도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책자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읽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삶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라안 멜라인 레헤마



기도제목

1. 그룹홈 소식을 작성하는 중에 티처 루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브라빈이 또 그룹홈을 나갔다고요. 어제 학교에서 티처 루시를 찾아와 지난번 나갔을때, 자신이 모두 계획을 해서 이안이랑 패트릭을 꼬셔서 나갔고, 자신때문에 바바아모스가 나가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고. 그래서 티처 루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주신다고 얘기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왜 브라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일찍 그룹홈을 나갔을까요? 주님께 묻는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2. 여자 그룹홈의 돌보미 선생님인 티처 로니타의 어머니가 암수술을 받으셔서 병원비와 돌봄이 필요한데, 제가 없는 기간동안 홀로 그 모든 일을 하느라 많이 지쳐있습니다. 로니타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